

“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주역, 고양 청소년”

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

일시	2026. 5. 27.(수) 16:00~18:00	장소	2층 무제
주요내용	1. 재단 및 수련관 소개 2. 수련관 운영계획 보고 3. 상반기(1~5월) 운영 결과 보고 4. 하반기 주요 계획 보고 5.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		
참석자	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: 박○○, 이○○,이○○ 시설운영위원 : 박○○, 박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오○○, 정○○, 오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황○○		

회의내용

○ 신규위원 위촉

- 선발 과정 및 결과 공유(4~5월 10일간 홈페이지 공개모집하여 4명 선발)
-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

○ 고양시청소년재단 및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소개

- 재단 소개
- 조직 현황 안내
- 시설 현황 안내
- 기관 전략체계도 공유

○ 2026년 수련관 운영계획 보고

- 연간 사업 총괄표 및 현황 보고
-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 보고(서면)

○ 2026년 수련관 상반기(1~5월) 운영 결과 보고

- 1~4월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
- 상반기 활동 및 시설 이슈 공유

○ 2026년 수련관 하반기 주요 계획 보고

○ 질의응답

구분	발언자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및 역할 관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○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운영위원회가 단순 사업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는 논의와 제안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 요청. •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 모니터링, 사업 참여 및 청소년 의견 제안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, 법적으로 건의사항의 60% 이상을 수용해야 하는 구조임을 설명함. • 시설운영위원회는 예산 의결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 시설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협의체 성격이 강해 상시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함. • 향후에는 단순 사업 설명보다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의 운영 필요성을 제안함.

구분	발언자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미디어 작업실· 디지털 스튜디오 구성 및 유지관리 우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○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디어 작업실과 디지털 스튜디오 구성을 계획 중인데, 미디어 장비와 공간은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하며 장기적 운영 가능성이 우려됨. 이미 학교와 지역 내 관련 시설이 충분한 상황에서 수련관만의 차별성이 있는지 질의.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○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초에는 외부 미디어월 설치를 통해 광고 및 수익구조를 구상했으나, 광고법 및 조례 문제로 설치허가가 어려워 현재는 강당 내 디지털 미디어월 설치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함. • 미디어 작업실은 전문 실습실 개념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작업과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형 공간 개념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함. • 현재는 공간 조성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장비 구축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함. • 향후 디지털 리터러시, 사이버폭력 예방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함. • 지하 2층 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영상 촬영 및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스튜디오 형태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함. • 유지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 중이며, 선거 이후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.

구분	발언자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미디어 작업실· 디지털 스튜디오 구성 및 유지관리 우려</p>	이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 현장에서도 미디어월 관련 민원이 많고, 고양시 내 디지털미디어 관련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상황에서 수련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.
	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억 원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실제 수요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견 제시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1층 카페 공간 활용 관련</p>	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1층 카페 공간을 외부 위탁 운영 중인데,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상담받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.
	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페 공간 활용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, 향후 선거 이후 운영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함.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청소년 접근성 및 셔틀버스 운영 관련</p>	오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산서구·마두·토당 외 지역 청소년들은 수련관 접근이 어려우며,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 등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.
	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 일부 수련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수영장 등 수익시설이 있는 경우이며, 고양시 수련관은 별도 수익사업 구조가 없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함. • 셔틀버스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. • 기존에는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, 시설별 특성화 요구가 커지며 현재와 같은 특성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함.

구분	발언자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수련관 특성화 운영에 대한 청소년 의견</p>	이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별 특성화 운영에 대해 실제 청소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질의.
	황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덕양구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으며, 과거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. • 다만 특성화 운영을 통해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함.
	김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서구수련관의 진로·창업 특성화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. • 다만 특성화와 별개로 다른 분야 프로그램도 일부 함께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함.
	김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들이 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 및 일정 문제라고 설명함. • 특성화보다도 접근성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함. •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 기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가 통합 압박을 받아 해체된 사례를 언급하며, 각 수련관의 고유한 운영 방향과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. 청소년 진로·창업 프로그램 운영 방향 관련</p>	김○○, 김○○, 이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들에게는 결과 중심보다 “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”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됨. • 초등학생부터 다양한 창업·체험 활동을 통해 성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됨. • 외부 기업·재단·정부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안됨. • 학교 창업동아리 사례를 공유하며, 기업인 멘토와 청소년이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모델을 제안함.
	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거 ‘이루어드림’ 사업 등을 통해 실패 경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했으나, 공공기관 특성상 회계 정산과 행정 절차가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함. • 현재는 성과 중심 사업 구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. • 직원 수와 기존 사업 규모 한계로 새로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함.

구분	발언자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. 청소년수련관 역할과 운영 방향 관련 종합 의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○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위원회가 단순 보고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함. •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보편적 성장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함. • 특성화 사업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, 현재는 수련관에 과도한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 제시함. • 문화의집 등 소규모 생활권 시설 확대와 수련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함. • AI 시대일수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. • 지역사회 자원과 운영위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 회의 운영 관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○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향후 운영위원회는 단순 보고보다 토론 중심의 회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함. • 만족도 조사 참여를 요청함.